

다산포럼

이남주



먼저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은 '민족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논의의 출발점이 아니라는 점이다. 중국의 근대사가 서구 열강의 침략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상당 기간 국제무대로의 진출이 가로막혔으며 서구로부터 여러 편견, 특히 인권 등의 보편적 가치도 정치적 의도에 따라 다르게 이용되는 이중 기준에 중국이 오랫동안 시달려 왔음을 고려하면 중국인들 사이의 강한 민족주의적 경향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최근 성화봉송 과정에서 나타난 충돌에 대해 중국인들이 반발하는 반응을 보여준 것도 이해할 수 있다. 티베트에 대한 중국 정부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중국인들조차도 7년 전에 개최가 결정되고 지금껏 준비해온 베이징올림픽에 대해 국제사회가 비판적 태도를 보이는 것을 평온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힘을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성화봉송을 둘러싼 충돌을 계기로 표출되는 중국의 민족주의에 대해서는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 가장 큰 이유는 그 논리가 자

신을 피해자로 인식하는 과거의 틀에서 여전히 조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국제사회에서 티베트를 둘러싼 논란은 단순히 독립을 지지하느냐 반대하느냐의 문제는 아니다. 국제사회는 '약자인

중국 민족주의에 대한 우려

티베트인들이 왜 그처럼 격렬하게 저항하는가에 대해 중국이 좀 더 진지하게 설명해 주기를 원한다. 그리고 앞으로 티베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지금 중국이 공식적으로 취하고 있는 이른바 '달라이라마를 대표로 하는 소수의 분열주의자들'을 진압하는 방법 외에 좀더 종합적인 해결방법을 기대하고 있다.

국제사회가 중국 정부의 티베트에 대한 태도를 주시하는 것은 이를 이후 중국이 국제사회에 대해 취하는 태도를 예측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로 보는 심리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티베트 사태

를 전후로 보면 중국 정부의 대응은 지금까지의 틀에 박힌 방식을 넘어서지 못했으며, 전혀 새로운 면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친중국적인 시위와 주장들은 성화봉송을 계기로 표출되는 국제사회의 중국 정부에 대한 비판을 근대 이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중국인들에 대한 모욕으로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중국 내에서는 프랑스의 유희업체인 까르프, CNN 등에 대한 비판여론이 비등하고 일부 중국인들은 행동에 나서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성화봉송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에 중국 정부를 비판하는 시위에 역시 조직적 시위로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주장에서 한쪽중심주의가 내부 이민족에 대해 보였듯, 그리고 중국이 주변국가들에 대해 취했던 지배자적, 가해자적 성격에 대한 반성적 고찰과 배려는 찾아보기 힘들다. 중국 민족주의에 내재하는 피해자의식과 국제사회에서 초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현실 사이의 불균형은 이제 중국과 국제사회의 소통과 이해를 가로막는 가장 커다란 장벽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서구의 이중 기준 등에 대한 중국인들의 이유

있는 비판도 설득력을 갖기 어렵게 될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중국인들의 이러한 감정이 이제 중국 영토를 벗어나 세계 곳곳에서 공공연하게 표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당연히 국제사회에서는 이러한 반응을 피해자들의 항변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중국의 국력이 커지면서 중국인들이 자행하는 횡포로 받아들일 것이다. 이러한 사태가 계속되면 중국과 국제사회가 충돌하고 반목하는 상황으로 발전할 수도 있으며, 이는 21세기의 변화를 규정짓는 균열요인이 될 수도 있다.

물론 여기에는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국제사회에서 중국 민족주의를 열린 자세로 토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대화의 주체들이 이러한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성숙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싸우지 않으면 친구가 될 수 없다(不打不成交)"는 중국말이 있다. 이번 성화봉송을 둘러싼 시비가 앞으로 갈등을 심화시키는 출발점이 아니라 진정한 신뢰의 기초를 다지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잃게 될 것은 단순히 친구 하나만은 아닐 것이다.

(성공회대 중국학과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혁신도시 '정략적 흔들기' 본격화 하나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혁신도시 흔들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혁신도시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가 최근 한 워크숍에서 혁신도시 수 갑축과 가능별 통폐합을 주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혁신도시 건설을 반대하던 대표적인 인물인 서울대 최상철 교수가 다음달 새 출발하는 국가균형발전 위원회 위원장에 내정됐다. 이 같은 과정을 볼 때 혁신도시가 차질을 빚지 않을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혁신도시 흔들기는 지난 14일 국토연구원 '지역 간 균형개발과 지역별 특화발전'으로 국토정책의 목표를 수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을 때

부터 예고됐다. 다음날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경제효과가 부풀려졌다는 감사원의 보고서가 공개됐고, 국토해양부가 혁신도시 문제점만을 작성한 문건이 중앙안론에 대서특필됐다. 지방의 거센 반발로 잠시 주춤하던 혁신도시 흔들기에 이번에는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가

가담하는 형국이다. 의도적으로 혁신도시를 뒤흔들려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토지공사는 워크숍 자료에서 혁신도시 시 애로사항으로 '사업추진 방향의 불확실성과 지자체의 의지 미흡' 등을 거론했다. 하지만, 이는 억지 논리다. 5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특별법이 제정됐고, 시·도지사 간의 합의는 물론 공공기관 노조와 협약까지 맺지 않았는가. '지자체의 의지 미흡'은 말도 안 된다. 혁신도시는 비수도권 전체 지자체가 쌍수를 들어 환영했고 토지보상도 최고 95%까지 진행됐다.

혁신도시 건설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의 붕괴를 더 이상 방지할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정부는 혁신도시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치고 빠지는' 식의 여론몰이로 호도해서는 안 된다. 혁신도시에 대한 정략적 흔들기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靑 인사검증 시스템 서둘러 정비해야

박미석 청와대 사회정책수석비서관이 지난 27일 임명 당시 논문 표절 의혹을 받아온데다 이번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까지 제기돼 낙마한 것이다. 박 수석의 사퇴로 이명박 대통령의 지도력에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청와대는 이번 과정에서 도덕 불감증과 '제 식구 감싸기'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청와대는 박 수석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차 충분한 검증 절차 없이 사퇴해야 할 정도의 중대 결함이라고 주장했다. 박 수석의 '자경확인서'가 가짜로 판명됐는데도 확인하려는 모습은 없었다.

논문 표절 의혹까지 감안하면 청와대의 인선 기능과 검증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제대로 대처했다면 파장이 확산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일부에선 박 수석의 사퇴를 파문 확산을 막기 위한 '도마뱀 꼬리 자르기'라고 비난했다.

청와대의 인사검증시스템이 도마에 오른 것이 처음은 아니다. 새 정부 출범을 전후한 검증과정에서 이춘호 여성, 박은경 환경, 남주홍 통일부장관 내정자 등 3명이 낙마했다. 공판장 인사에선 퇴로 이명박 대통령의 지도력에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유우의 대통령실장은 "정권교체가 되고 있는 중이지 완전히 왔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지만 그 것이 '면피'가 될 수는 없다. 출범 2개월여만에 고위 공무원 4명이 각종 의혹에 연루돼 물러난 것은 심각한 문제다. 변명보다는 국민에게 사죄하는 것이 당연하다.

부동산 투기 의혹과 위장 전입 등 재산공개 파동이 박 수석의 사퇴로 끝났는지 의문이다. 청와대는 선을 긋고 있지만 일부 인사에 대한 의혹은 풀리지 않고 있다. 청와대가 인사검증시스템을 정비하지 않으면 문제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 청와대는 공직자의 도덕성 기준부터 높이기 바란다.

無等鼓

경제학자들은 세계 전체 인구의 절반이 현상태를 유지하는 것보다 출생률이 낮은 지역에 살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지역의 여성들은 현재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2.1명의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계산법을 내놓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여성들은 몇 명이나 낳고 있을까. 2007년 세계인구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겨우 1.29명으로 세계 순위가 무려 207위다. 꼴찌 홍콩이 0.98명이나 저출산의 심각성을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앞서 지난 2006년 인구관련 포럼에서 충격적인 보고를 내놓았다. 한국은 2300년에 인구가 없는 텅 빈 국가가 된다는 것이었다. 학자들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인구가 소멸하는 최초의 국가로 하필이면 한국을 꼽았다. 불과 2년 앞을 못 내다 보고 지난 80년대까지 1년에 8만 명을 해외로 입양시킨 한심한 국가, 한국이 자초한 무서운 미래가 아닐 수 없다. 최근에는 베트남에서 어린이 해외입

양 붐이 일면서 문제가 터지고 있다. 미 국민들의 베트남 어린이 입양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데 애들이 부족해 중개꾼들이 이 마을 저 마을 돌면서 애들을 모으고 있다. 치료비가 없는 산모들이 신생아를 바로 팔아 버리는 등 무자립이로 중개꾼들의 손에 아이를 넘기고 있는 모양이다.

미국 가정에서는 한 아이 당 2만5천 달러를 지급하는데 여가에서 떨어지는 사례금이 입양을 부추기고 있다. 할리우드 스타 안젤리나 졸리가 지난 해 베트남 고아를 데려가면서 '입양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데다 '최대 어린이 수출국'인 중국이 입양을 규제한 것도 큰 몫을 하고 있다.

이 때문인지 베트남 입양은 지난 1년 새 400% 증가했다. 미 대사관에서 걱정을 해주는데도 베트남의 관리들은 근거 없는 우려라고 일축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의 탁월 재앙보다는 현재의 배고픔이 먼저인 것 같다. /기현호 경제부장 khh@kwangju.co.kr

입양수출



기고



장정식

봄별 따라 흐르는 광주천 물빛이 따사롭게 어울린다. 제일오피스텔 고층에서 내려다보는 천변의 경관이 새삼 청결하고 시원하다.

한 때 광주천이 너무도 오염되어 있어 심할 때는 가까이 서면 악취가 풍기고 개천에 버려진 쓰레기나 오물들로 하여금 누추할 만큼 오염의 한계상황에 이르기도 했다. 이것을 본 시민 누구나가 안타깝게만 바라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랬던 것이 최근에 와서 광주천 정화사업에 행정력이 배려되면서 교량미화사업에서부터 오페수 정화사업, 하상정화와 천변 미화 등의 사업으로 광주천은

사실이다. 광주천이 더 맑아졌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환경단체에다 전화문의를 해 보았다. 광주천 오페수 정화사업이 끝난 것인가 하고... 대답인즉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고 했다. 광주천 물은 사실상 낚시한 물고기를 아직 먹을 수는 없다. 그리고 개천에 선풍 발이라도 답글 수 있을 정도는 아니다.

그래도 다행이었던 것은 지난 88회 전국체전을 광주에서 개최하기 전에 광주천 정화사업을 1차 마쳤던 일이다. 그로 인해 광주천이 이만큼 깨끗하게 정화되었고 공원화 되었다고 때문에 광주천의 깨끗한 도시면모를 인상 깊게 전국에 심어주었던 것이다. 전국 각지에서, 해

광주천 더 맑아졌으면

이제 시민의 휴식공간인 공원으로 탈바꿈했다. 천변에 자전거길이 만들어지고 도보운동을 할 수 있는 쾌적한 길이 냈물 따라 장사대로 뻗어있다. 흐린 물속엔 피라미가 놀고 왜가리들이 자용지어물 위에 날아들어 먹이 사냥을 한다. 광주천은 이제 격세지감을 느낄 만큼 생태계와 환경의 변화를 가져왔다.

돌이켜 보면 50년대까지만 해도 광주천은 시민들의 사랑을 뽐받았던 시냇물이다. 여름이면 하동들이 물장구치며 더위를 식히던 천혜의 놀이터였고 부녀자들이 즐기기 좋아 빨래하던 빨래터가 즐비했다. 여름밤 무더위를 식히러 냇가에 나온 사람들은 의례히 냇물에서 목욕을 했다. 적어도 50년대를 살았던 시민이라면 그때 그 깨끗했던 광주천의 향수는 아직도 우리를 가슴에서 사라지지 않았음을 느낄 것이다.

이 때에 비하면 광주천은 아직도 탁한 오염도가 완전히 정화되지 못한 계

외각국의 교포들까지 모여든 체전 참석자들은 광주천이 깨끗하고 아름답게 공원화 되었다는 인상 어린 호평을 하기도 했다. 이러한 갖가지 집약된 성과로 인해 광주가 250개 지자체중 최우수 기관으로 뽑혀 '행복한 도시' 대상의 영광을 안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

이제 우리는 2013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광주에서 열도록 하는 대회 유치 운동을 열화같이 전개하고 있다. 일자리 3만개와 1조 5천억 원의 경제효과와 호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 유치를 경합이 되고 있는 3개국간에 우리 광주가 개최지 환경이 아주 유리한 조건이라고 하니 보다 적극적인 유치 운동을 펼쳐야 할 일이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보건복지와 친환경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일환으로 광주천의 수질을 유리하게끔 맑게 변화시킬 공사가 먼저 이루어졌으면 하는 소망이다.

<수필가 전 광주동부교육장>



조랑말의 육아기



동물원에 조랑말 암컷 한 마리 있다. 혼자 지내는 게 안스러워 같은 종은 아니지만, 체구가 큰 제주말 우리에 함께 넣어 주었다.

그런데 점점 배가 불러오기가 싫더니, 덩실 새끼를 낳는 게 아닌가. 모두가 설마설마 했는데 제주마 수컷과 그 절반이나 밖에 안하는 이 작은 조랑말 암컷 간에 새끼가 태어난 것이다. 그 관계 맺음은 누구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는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다. 물론 잘 였으니까 가능했겠지만 말이다.

낳은 것도 대단했지만 특히 이 조랑말의 새끼에 대한 지식 사랑은 정말 극진하다는 말이 딱 어울렸다. 분만 시에도 열심히 닦고 핏줄이 끊어지면 안된다고 하니 6개월이 지나서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새끼 걸을 떠나본 적이 없다.

새끼는 한 1개월쯤 지나자 오히려 엄마의 과도한 보호가 귀찮은지 자꾸

엄마 곁에서 멀찌감치 떨어져 제멋대로 돌아다니다가 하지만, 살짝 인기척만 느껴도 이 어미는 얼른 달려와서 새끼 곁에 꼭 붙어서 함께 바삭 붙어 다닌다.

제주말 아버지는 제 새끼인지를 전혀 모르는 논치다. 그도 그럴 것이 털 색깔이나 크기가 어미를 꼭 빼닮았기 때문이다. 사실 아버지와 닮았다면 '큰 새끼'에 작은 어미'가 되어 참으로 그 모양새가 우스웠을 것이다. 처음에는 함께 지내는 제주말들과 당나귀들이 가끔 이 새끼를 괴롭히려 들었다. 그럴 때 어미가 마치 비호처럼 나타나 바로 뒷발차기에 들어갔다. 맞는 충격은 말이 딱 어울렸다. 분만 시에도 열심히 닦고 핏줄이 끊어지면 안된다고 하니 6개월이 지나서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새끼 걸을 떠나본 적이 없다.

새끼는 한 1개월쯤 지나자 오히려 엄마의 과도한 보호가 귀찮은지 자꾸

야생동물 뛰어들지 않게 도로 가드레일에 그물 설치

자동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이용하다 보면 도로에서 야생동물의 사체를 자주 보게 된다. 요즘은 지방국도도 왕복 4차선의 잘 풀려있어 고속도로 같다.

하지만 사람들이 속도를 내며 즐기는 쾌감 뒤에 야생동물의 끝없는 희생이 뒤따른다. 아무 죄없는 생명이 죽고 토종 야생동물의 개체수가 줄어드는 것도 문제라니 동물 사체가 길 한가운데 널부러져 있는 것은 미관상으로도 흉측하다. 또 순간적으로 그것을 피하려고 핸들을 꺾다가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기까지 한다.

도로를 많이 만들수록 이런 동물의 희생과 위험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도로를 야산을 절개하고 터널을 뚫어 만든다 보니

자연히 야생동물의 터전을 빼앗는다. 거기가 이동통로가 사라진 야생동물들이 겁없이 길을 건너다가 변을 당하는 것이다.

동물들의 사체는 특히 가드레일에 있는 구간에서 자주 발견된다. 야생동물들이 가드레일 밑을 통해 고속도로로 뛰어 들었다가 차에 치였기 때문이다.

예산이 들겠지만 점차적으로라도 가드레일 밑에 그물 철망을 설치했으면 한다. 동물들이 가드레일 밑으로 들어와 도로로 뛰어 드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말이다. 그대신 동물들이 이동할 수 있는 예코 터널의 숫자를 더 늘리고, 최대한 자연친화적으로 조성하고 가꾸어야 할 것이다.

▲박준우·목포시 옥암동

외제차 렌트로 국산차의 6배... 바가지 심하다

회사 소유의 외제 승용차를 타던 중 추돌 사고로 렌트카를 이용하게 됐다. 당장 동급의 외제차가 필요했는데 사고가 나자마자 유명 승용차를 가지고 렌트카 업체들이 회사로 달려왔다. 너도나도 명함을 건네며 자신들의 차량을 이용하라고 권했다.

그런데 하루 렌트료가 무려 80여만원대였다. 이것을 수리기간인 보름동안 이용할 경우 렌트 비용이 어지간한 국산차 한 대값에 맞먹었다. 물론 가해자 과실이었기 때문에 그냥 타면 되는 일이었지만 그 돈이 너무 아까워 국산 승용차를 타기로 했다. 3000cc

급 국산차 렌트값은 하루에 13만원정도로 외제차에 비해 6배정도 됐다.

나중에 알고보니 렌트카 업체들은 대형 사고일수록 더 좋아한다고 한다. 외제차 수리기간이 길수록 렌트카들은 큰 수입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렌트카 업체중 국산차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외제차 증가와 함께 사고도 그만큼 늘고 있는 요즘 고가의 렌터카 사용료는 결국 자동차보험 가입자 전체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건 아닌지 깊이 생각해볼 문제다.

▲이학섭·광주시 광산구 양산동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喆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대표전화 2200-551		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사회 2부	2200-619	경영지원국
<대표 FAX>	222-4918	<F A X>	227-0118
편집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정치부	2200-616	여론대우부	2200-628
경제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사회 1부	2200-618	사 진 부	2200-690
<F A X>	222-4267	조 사 부	2200-570
2200-511		문화홍보국	
2200-521		독자서비스국	
2200-551		2200-551	
227-9500		227-9500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02-773-9335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